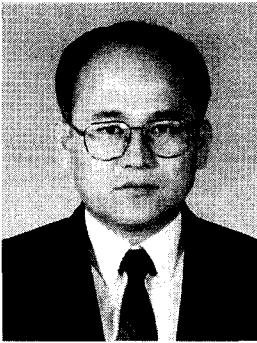


환차손과 주류업계의 대응방안

1. 서론



하 병 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 나라 원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이 떠안는 환차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이 1996년 말의 844원에서 1997년 말에는 1415원으로 무려 68%나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증권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 법인들의 환차손이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서도 환율변화에 따른 기업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96년의 손해액인 2조 8천억 원의 8배를 넘는 수준이다.

환차손이란 환율의 변동으로 소지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 흐름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그 동안 저금리의 달러화로 외국에서 차입한 기업의 경우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원화로 표시한 부채금액이 산더미처럼 커진 것이 환차손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막상 지불하여야 할 이자도 원화 금액으로 표시하면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기업도 예기치 않았던 환차손을 부담해야만 하였다. 환율 상승을 예상하지 못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막상 수입대전을 결제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환율 상승으로 원화 표시 수입가격 그리고 수입금액이 상승하여 큰 손실을 입은 경우가

■ 목 차 ■

1. 서론
2. 환율과 환차손
3. 환차손 회피 전략
4. 주류업계의 대응

비밀비재하였다. 반대로 환율 상승이전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상승이후에 달러화 혹은 외화로 수출대전을 수취하는 기업은 예기치 않았던 커다란 이익을 보았다. 즉 환차익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환차손은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을 여행하고 크레디트 카드로 결제한 여행객들은 예상보다 높은 환율이 적용됨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업의 수출입업무만큼은 물건의 구입시기와 결제시기(정확히는 환율적용 시점)와의 시차가 크지 않아 환차손의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점은 있다.

또한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자금을 송부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이러한 환차손이 적용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기 이전에 미리 환전하여 두었거나 혹은 송금한 부모와 뒤늦게 송부한 부모간에 같은 금액의 외환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남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오르기 전의 환율을 고려하여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신문지상을 통하여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또한 환율이 급상승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종래에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다가 오히려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환율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본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환율의 변동과 관련한 환차손에 대한 사례가 언론에는 물론 주위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환차손의 원인과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을 살펴보고 주류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2. 환율과 환차손

환차손과 환차익을 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

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환율이 단기간에 걸쳐 급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원화의 대달러화 환율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면 1996년 12월부터 외환위기 전인 1997년 9월까지의 월간 변화율이 평균 2%에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의 조짐이 있는 10월에는 환율이 5.5% 상승하고 그 이후 11월, 12월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전월에 비해 평균 20%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일별로도 기준 환율이 하루만에 20% 가깝게 변화하는 날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 더욱이 하루중에도 시장에서 체결되는 환율이 상하 최고 30%이상 변동하는 날이 있는 등 하루에도 환율의 변동이 심하여 은행들이 대고객 적용환율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변경하기도 하였다.

원화의 대달러화 환율의 추이

단위: 원, %

	환 율	전월비 변화율
1996. 12	844.2	1.9
1997. 1	861.3	2.0
1997. 2	863.9	0.3
1997. 3	897.1	3.8
1997. 4	892.1	-0.6
1997. 5	891.8	-0.0
1997. 6	888.1	-0.4
1997. 7	892.0	0.4
1997. 8	902.0	1.1
1997. 9	914.8	1.4
1997. 10	965.1	5.5
1997. 11	1,163.8	20.6
1997. 12	1,415.2	21.6
1998. 1	1,688.8	19.3
1998. 2	1,640.1	-2.9

주: 1) 월말 기준환율임.

이처럼 환율의 변화가 최근 들어 급상승하

고 큰 폭으로 변화한 근본요인으로는 외환보유고 부족 및 우리 경제의 신인도 저하와 이에 따른 우리경제의 불안정성을 꼽을 수 있겠다. 우리 경제의 체질 불안이 대외경제관계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환율의 불안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불안정이 해소되면 환율이 과거와 같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 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더라도 원화의 환율이 옛날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과거보다는 환율이 매일매일은 물론 일정한 기간에도 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환율의 가변성이 커진 이유로는 원화의 환율이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외환사정이 악화되고 환율이 계속 불안하자 정부는 환율이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존의 $\pm 2.25\%$ 에서 11월 19일에는 $\pm 10\%$ 로 확대하였고, 이어 12월 15일부터는 제한 폭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할 수 있는 한계를 없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동안에 환율이 변화할 수 있는 폭이 커짐으로써 일간의 환율변화폭도 커지게 되었다.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경제자체가 불안정할 경우 환율이 짧은 시간 안에 무한대로 혹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하겠다. 환율의 가변성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튼튼할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후와 같은 환율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시장요인에 의해 자유롭게 움직임에 따라 시장에서 착란요인이 돌발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변성이 커진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본자

유화의 진행을 들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의 이행과 함께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이 대폭 개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자본시장은 계속 개방되어 국제금융시장에의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 지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바로 환율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단기자본은 금리 등 경제변수의 움직임이나 정치·사회적인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내시장을 넘나들으로써 환율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자본자유화가 부진하였던 과거에는 외국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인 거래에 따른 결제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실물경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환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더욱이 실물경제의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환율의 변화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화의 환율이 과거에 장기간에 걸쳐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한 것은 이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본자유화가 진행된다면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자본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단기자본은 물가와 금리 등과 같은 실물경제의 변수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도 급격히 움직인다는 점에서 자본자유화의 진행은 환율의 변화 폭을 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사태와 같은 국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세계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엔화가 하루 동안에도 크게 변화하였던 과거의 경험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차손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환차익은 예

기치 못한 이익을 기업에게 가져온다. 예기치 못한 손익이 발생하며 미리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환차손은 물론 환차익까지도 기업 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규모의 환차익은 거꾸로 대규모의 환차손을 감내하여야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환율의 변화로 커다란 환차손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기업 존립의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단지, 기업이 외환에 투자하여 환율변화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는 한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이 아니라 단지 부수적인 활동인 금융자산 혹은 금융결제의 위험성을 방치한다는 점에서 경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환율이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앞서 설명한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업의 세계화가 진행된다고 보면,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에의 편입과 국내 금융시장의 세계금융시장에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로 환율의 가변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우리는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간 상품 거래는 물론 여행 등과 같은 외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외환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환차손 회피 전략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환위험에 노출되는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상쇄하는 것이다. 외환으로 표시된 순외화 자산이나 채권을 최

소화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치의 변동을 줄이는 것이다. 환차익까지도 회피하자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환위험 회피전략이라 할 수 있다.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장래 결제에 필요한 외환을 앞서 구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거래가 형성되어 장래 외환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시점에서 결제시점에 앞서 미리 외환을 구입하여 외화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방안이다. 마찬가지로 장래 입금될 외환을 입금시기 이전에 판매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미리 달러화나 엔화 등의 외환을 구입하고 결제에 대비하여 은행에 외화예금으로 저축하여 두는 것은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한 원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수입대금의 결제나 혹은 외화부채의 상환을 위해 달러화 예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도 한 예라 할 수 있다. 입금시기 이전에 판매하는 방안으로는 수출 선적 후 외국환 은행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고 여기서 얻은 외환을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출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을 미리 구매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에 잠겨두어야 하는 데서 나타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혹은 외환을 미리 판매하는 것은 현행의 금융위기 하에서 할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으로 선물환 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 선도화 거래라고도 함)나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환선물이라고도 함)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선물환거래는 미래의 일정 시점 혹은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의 외환을 일정한 환율에 의해 사고 팔 것을 약정하고 이행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면, 현재 환율이 달러당 1600원인 상황

하에서 20일 이후에 10만 달러가 필요한 기업이 외국환 은행과 20일 후에 10만 달러를 사는 계약을 달러당 1700원(선물환율)으로 체결하였다 하자. 20일 후의 결제시점에 환율이 얼마이든 이 기업은 달러당 1700원으로 10만 달러를 구입하게 된다. 결제시점에 환율이 1800원이라면 이 기업은 환차손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시점에 환율이 1500원이라면 선물환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누렸어야 할 환차익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선물환거래로 환차손은 물론 환차익까지도 포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게 된다.

통화선물은 장래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환율로 거래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선물환거래와 다를 바 없다.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과 은행간에 창구에서 직접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액, 기간 등과 같은 거래조건도 고객과 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통화선물은 선물거래소라는 특정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거래 단위, 결제 시기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기업이 선물거래소라는 시장에 참여하여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의 통화선물을 구입하면 된다. 예를 들면, 6월말에 일정한 금액의 달러화가 소요되는 수입기업이 통화선물시장에서 같은 금액의 선물계약을 매입함으로써 6월말의 결제시점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화선물은 신용문제 등으로 선물환거래를 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선물시장에의 참여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통화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단지 외국환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이 통화선물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자본자유화의 부진, 환율의 낮은 가변성 등으로 선물환을 제외하고는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미미하

였으나, 장래에는 이러한 금융상품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화선물시장은 금년 중 개장이 예정되어 있어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은 환위험 회피 방안으로 통화선물시장에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환위험 회피전략으로는 상호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시기 및 결제통화를 조절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같은 기업에 수출하고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 수입대금과 수출대금간의 시간상의 차이로 환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수입대금을 한국기업이 수출 선적시까지 연기하고(연지급 수입) 수출선적과 동시에 환어음을 할인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환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출입의 결제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상호거래가 없더라도 수출기업과 이 기업에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기업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일정부분의 결제금액을 외환으로 함으로써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환율에 의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마다 금리가 다르고 기업마다 미래의 환율에 대한 전망이 다르므로 계약 체결에 힘든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리 혹은 유로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환율은 선물환율이나 은행에서 사용되는 특정환율을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네 번째 방안으로 거래통화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대 동남아시아 수입의 결제통화를 동남아통화나 원화로 하고, 미국과의 결제통화는 달러화

로 하였다고 하자. 이번 외환위기 하에서는 달러화 거래에서는 환차손을 입었지만 대동남아시아 수입의 경우에는 환차손을 입지 않음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달러화나 엔화와 같은 주요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와의 제휴나 협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환차손을 회피하는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환율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바탕을 둔 장래 환율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선물환이나 기업간 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에 드는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고 최선의 수단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환차손 혹은 환위험의 회피가 단순히 거래 단위로 평가하지 말고, 기업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사내선물환제도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기업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선물환가격에 따라 부서간에 선물환을 거래함으로써 담당 부서는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금담당 부서는 기업 전체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외화만 은행과 거래함으로써 기업 전체적으로 환위험의 회피는 물론 선물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이다.

4. 주류업계의 대응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제일의 타개수단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소득감소와 실업 등으로 내수는 계속 위축되고 있어 내수 기업들은 비

용 절감 등으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류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시장개척과 기존 수출시장에 대한 판매를 늘리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 탓이기도 하지만 높은 환율에 따른 수출의 수익성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반면 주정, 옥수수 등의 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업체는 원화 환율에 따른 손실로 고전하고 있다.

주류업계도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최근의 환율 변동 그리고 나아가 장래의 환율 변동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하겠다. 주류 업계의 경우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기업도 있지만, 주로 수출시장에 국내시장에 최종 제품을 출하하거나 혹은 외국의 원재료를 들여와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 구분된다. 이러한 주류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환차손 회피전략은 어떠하여야 할까?

우선, 외환 지출대금과 수입대금의 금액 및 시기를 최대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선물환과 같은 금융기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현재의 금융경색 하에서는 외환 수수료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선물환거래 등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금년에 금융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금융자유화와 더불어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위험 회피와 같은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기법을 적용하는 기업도 확대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때쯤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자유화,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으로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는 물론 기업도 세계화가 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세계화의 진행은 생산하거

나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등 제품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환율제도의 변화와 금융자유화는 실물거래에 수반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요인을 증대시키는 반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사내에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야 함을 물론이다.

셋째로는, 외환을 공급하는 완제품 수출업체와 외환이 필요한 원자재 수입업체와의 제휴로 환위험의 상호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하는 업체로 크게 분류되는 주류업계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최종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주정 등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간에 수직적인 협력관계가 바람직하다는 면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많은 환율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연말에는 기준환율이 달러당 1400원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초순의 기준환율은 1500원과 1600원대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수출입 거래와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러한 전망을 평균 환율 개념으로 매일 매일 기업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환율 변동 폭이 적었으므로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1400원 대에서 기업이 외환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매일 매일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일주일간에 변화하는 폭이 200원에 육박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균환율이 1400원대라 하더라도 날짜에 따라서는 1600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평균 환율 전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환위험에 거래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환투자 혹은 환투기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환차손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최근에 경험하였던 환차손이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환율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추세 혹은 하락추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환율이 과거와 같이 장기간의 일방성의 추세를 나타내기보다는 몇 개월만에 그 추세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엔화 환율의 변화에서 이러한 점을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환율 변화에 의한 환위험은 국가간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는 일상사가 될 것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 혹은 대비책이 없을 경우 기업 존폐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제 모든 국제거래가 환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환위험이 결국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적절한 환차손 회피전략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